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본 비행 청소년 걷기 교화 경험의 구조

제주 ‘손 심영 올레’ 사례*

A Therapeutic Mobility Perspective on Walking-Based Rehabilitation Experiences among Delinquent Youths: The Case of ‘Son Sim-eong Olle’ in Jeju

주 하 정** · 신 예 원*** · 고 다 은**** · 정 철*****

Chu, Ha-Cheong · Syn, Ye-Won · Koh, Da-Eun · Jeong, Chul

요약: 이 연구는 제주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을 사례로, 걷기 기반 교화 경험의 구조와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당 경험을 관광적 이동 경험으로 해석하고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도구적 질적 사례연구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공식 문서, 운영 기록, 참여 청소년 및 동행자의 온라인 후기과 소감문을 포함한 다중 자료를 수집하여 해석적 경험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걷기 교화 경험은 활동적 신체, 사회적 신체, 걷기의 맥락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경험 환경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험은 이동 초기의 긴장에서 정서적 완화와 관계적 상호작용을 거쳐 자기 인식의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적 변화 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직선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정서적 완화와 피로, 관계적 개방과 거리감이 공존하는 비선형적 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걷기 경험이 치유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관계, 환경, 제도적 조건의 상호작용 속에서 맥락적으로 형성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걷기 기반 교화는 관광적 이동 경험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은 제도적·비자발적 맥락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관광 경험의 형성 과정을 경험 중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이해를 심화하고, 향후 걷기 기반 교화 및 치유관광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Received February 19, 2026 Revised April 27, 2026 Accepted May 6, 2026

* 이 논문은 제99차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This paper was prepared by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paper that presented at the 99th TOSOK conference.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B5A16009203).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5S1A5B5A16009203).

**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연구교수. loveaz05@hanyang.ac.kr

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Halla University.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학과 석사과정. syw010329@hanyang.ac.kr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학과 박사수료. de008@hanyang.ac.kr

Ph.D. Candidate,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jeong72@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Hanyang University.

핵심용어 : 치유적 모빌리티, 걷기 교화프로그램, 비행 청소년, 경험 환경, 질적 사례연구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tructure and formation process of walking-based rehabilitation experiences using the Jeju Son Simeong Olle walking rehabilitation program as a case study. The experience was interpreted as a tourism mobility experience and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rapeutic mobilities. An instrumental qualitative case study design was employed, and interpretive experienc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official documents, program records, and online reviews and reflective accounts written by participants and accompanying guardians. The findings showed that walking-based rehabilitation constituted an integrated experiential environment in which the active body, the social body, and the context of walking were organically combined. The experience evolved from initial tension to emotional relief, relational interaction, and the reconstruction of self-awareness. However, this progression was nonlinear, with emotional relief coexisting with fatigue, and relational openness coexisting with interpersonal dista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ealing through walking is contextually shaped by the interaction of bodily, relational, environment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Accordingly, walking-based rehabilitation should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tourism mobility experiences, extending the concept of therapeutic mobilities to institutional and non-elective contexts. This study deepens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ourism experience formation and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walking-based rehabilitation and therapeutic tourism programs.

Key words : Therapeutic mobility, Walking-based rehabilitation, Delinquent youths, Experiential environment, Qualitative case study

I. 서 론

인간의 이동은 물리적 위치 변화가 아닌 그 움직임 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의 방식을 드러내는 경험적 과정이다(Qian, 2021). 이러한 경험은 공간과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며(Kitchin & Tate, 2013), 특히 걷기는 이동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중요한 실천 방식이 된다(이태숙 외, 2020). 걷기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체 리듬, 환경과의 접촉, 동행 관계는 개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 환경을 형성한다(Chu et al., 2025). 걷기는 이동 경로 자체가 관광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관광 형태와 구별된다(정철 외, 2011). 이는 걷기가 이동이나 활동 참여만이 아닌, 신체의 반복적 움직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인지적 회복을 유도하는 과정적 경험으로 작

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Bratman et al., 2015; Legrand et al., 2022).

자연환경 속 걷기는 감각 자극을 통해 주의를 현재 경험에 집중시키고, 자기 성찰과 내면 탐구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Ivaldi, 2024). 이와 관련하여 걷기는 개인의 정서와 인식을 조율하는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동 경험을 치유와 회복 차원에서 재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은 정서적 안정과 관계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청소년 교화 맥락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의 비행 문제는 실질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Lekareva et al., 2018). 최근 2~3년간 청소년 범죄가 다시 증가 양상을 보임에 따라(지표누리, 2025), 정부는 선도와 보호에 중점을 둔 다양한 조건부 제도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김지연 외, 2018;

박하나 외, 2021). 오늘날 교정·교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처벌 중심 개입에서 벗어나 재사회화를 위한 질서유지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김도윤, 2020). 이는 비행을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 아닌 사회정서 학습을 통해 단절이나 실패 경험을 치유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다(손경원, 이인재, 2009). 이러한 변화는 교화프로그램을 제도적 개입뿐 아니라, 참여자가 이동과 체험을 통해 경험 환경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화프로그램 연구는 참여자의 경험보다는 재범률 감소나 행동 변화와 같은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Nisar et al., 2015). 예를 들어, 재비행률 감소를 위한 제도적 운영 방안(김지연 외, 2018), 비행 태도 변화(장안식 외, 2016; Thomas, 2018), 규범 인식 개선(정현옥, 2016), 제도 운영의 효과성(이인곤, 2020) 등이 주요 지표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교화 과정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공간의 의미와 내면적 변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즉, 기존 연구는 변화의 결과 측정에 집중하여 경험적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체험형 교화프로그램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김형렬, 이정탁, 2007; Koenig & Knospe, 2021), 참여자가 해당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와 같은 한계를 고려할 때, 소년원 처분이나 보호관찰 명령에 따른 참여는 제도적 비자발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최인섭, 이순래, 2009), 교화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신체와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 환경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박종구 (2012)는 교정 기관 내 여가 프로그램에서 협동 기반 활동과 또래 상호작용이 공격성 감소와 사회 재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여가 활동의 구성 요소별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프로그램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작동하며 변화가 어떠한 경험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걷기를 활용한 교화 연구에서 Knospe and Koenig (2021)은 걷기 과정이 사회성 훈련과 자기 성찰을 촉진하는 경험 환경으로 기능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원세 (2019) 역시 ‘길 위 학교’ 프로그램에서 동행자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걷기라는 행위가 제도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경험 환경으로 구조화되며, 참여자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떠한 정서적 의미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경험 과정 중심의 논의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 교화 연구에서 경험 과정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접근은 중요한 연구 과제이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치유적 경관(therapeutic landscapes) 논의를 확장하여(Gesler, 1992), 이동하는 신체와 공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치유적 모빌리티(therapeutic mobility)를 분석 틀로 도입한다. Gatrell (2013)이 제시한 치유적 모빌리티는 고정된 장소의 속성보다 이동의 과정과 관계적 공간에 주목하며, 신체화된 경험을 통해 심리적 회복과 인식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박향기, 2025). 이에 관광학적 관점에서 걷기 기반 교화는 폐쇄된 제도적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비일상적 자연과 마주하며 자아를 재구성하는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Knospe & Koenig, 2021). 이러한 맥락에서 걷기는 신체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제도적 조건이 결합한 경험으로서 정서적 안정과 인식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김진옥 외, 2016; 박향기, 2025).

이 연구는 제주에서 운영 중인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을 사례로 설정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걷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 회복과 자존감 형성을 도모하도록 설계된 제도적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동, 제도, 자연환경, 동행 관계가 결합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걷기 경험을 통합적 경험 환경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에 이 연구는 사례연구

설계를 적용하여(Stake, 2008), 걷기 교화프로그램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걷기 기반 교화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에게 어떠한 경험 환경으로 구성되는지를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있다. 나아가 그 경험이 이동의 시간 흐름 속에서 어떠한 구조와 과정으로 인식·의미화되는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참여자의 내면 상태를 직접적으로 규명하기보다,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걷기 경험이 참여자의 서술을 통해 어떻게 인식되고 의미화되는지를 중심으로 경험 구조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지만 제도적·비자발적 맥락에서 경험이 어떠한 조건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교화 연구가 재범률 감소나 행동 변화와 같은 결과 중심의 효과 검증에 집중함으로써 경험 형성의 과정과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Nisar et al., 2015), 이 연구는 경험이 형성되는 구조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교화프로그램에서 경험이 어떻게 구성되고 의미화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제도적 환경에서 참여는 자율적 선택에 기반한 경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며, 기존 치유적 모빌리티 논의만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경험이 어떠한 상호작용과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경험 기반 교화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향후 프로그램 설계와 적용을 위한 분석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례를 경험 형성의 맥락으로 설정하고 참여자가 인식한 걷기 교화 경험의 구조를 해석적으로 탐구한다. 또한 기존 연구가 전제해 온 자율성과 선택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자발적 참여가 전제된 제도적 환경에서 이동 경험이 어떠한 조건에서 정서적 안정과 관계적 변화를 유도하는지 탐색한다. 기존 치유적 모빌리티 논의가 자율

적 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 연구는 통제된 환경에서도 신체적 리듬, 관계적 상호작용, 환경적 맥락이 결합할 때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정서 변화 경험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Doughty, 2013; Gatrell, 2013). 이러한 점에서 치유적 모빌리티는 제도적·비자발적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경험적 개념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RQ1.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에게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어떠한 경험 환경으로 구성되는가?

RQ2. 걷기를 통한 교화 경험은 이동 속에서 참여자의 정서적·관계적·인지적 상태가 어떠한 변화 구조로 전개되는가?

이 연구는 기존 교화 연구가 결과 지표 중심으로 경험 형성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고, 걷기 기반 교화 경험이 형성되는 환경과 과정에 주목한다. 또한 활동 요소 중심의 프로그램 연구와 달리 신체 활동, 관계적 상호작용, 환경 조건이 결합한 경험 환경을 분석 단위로 설정한다. 아울러 기존 걷기 기반 교화 연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제도적·비자발적 맥락에서의 경험 형성 구조를 해석하고,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의 적용 조건을 재검토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비행 청소년 교화의 전환과 걷기 중심 개념

비행 청소년(delinquent youths)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부모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소년법원에 부쳐질 수 있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의미한다(Nisar et al., 2015). 비행 행동은 청소년 발달 단계의 표현인 동시에 범죄 경력으로 이어

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Koenig & Knospe, 2021). 이러한 비행 청소년 교화는 과거 통제와 규율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처벌만이 아닌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표로 전환되고 있다(김지연 외, 2018). 국내 교화프로그램 또한 신체 활동, 예술 활동, 상담 및 교육, 멘토링 등 인간관계 중심의 체험 기반 개입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대검찰청, 2022) (〈표 1〉 참조).

그러나 국내 교화프로그램은 자기 이해나 자기 탐색에 집중되어 있어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재규 외, 2024). 이는 참여자의 관계 경험을 촉진하는 체험 기반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김원세 (2019) 역시 걷기 교화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경험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와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비행 청소년 교화에서 신체 경험과 관계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체험 기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걷기는 인지강도와 집중력을 향상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김태훈, 김기진, 2021), 자연환경에서의 걷기는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와 행복감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지영, 이훈, 2024; Meredith et al., 2020). 또한, Zucker and Sharma (2012)는 미국 교도소에서 6주간 미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였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 자기 인식, 자존감 향상 효과가 확인되어 프로그램이

12주로 확대되었다(Zucker et al., 2013). 이처럼 걷기 프로그램은 신체적 도전과 자아 성찰, 동행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유대 형성에 기여한다(주하정, 2025). 이러한 특성은 비행 청소년의 대인관계 기술 부족을 보완하고 긍정적 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화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김상균, 2005).

이와 같은 체험 중심 교화의 가능성으로 인해 해외에서는 걷기를 활용한 교화프로그램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쇠이유(seuil)’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동행자와 함께 약 2,000km를 걷는 장거리 프로그램이다(Le Breton et al., 2012). 일반 소년범의 재범률이 약 85% 달하지만,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범률은 15%로 낮으며 이는 장거리 걷기 기반 개입의 효과를 시사한다(장환순, 2014.06.07.). Koenig and Knospe (2021)은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이 신체적·정서적 회복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nospe and Koenig (2021)은 걷기 기반 교화프로그램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며, 장거리 걷기가 제도적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걷기 프로그램은 새로운 활동을 통해 자존감 향상과 자기 성찰을 촉진하는 대안적 교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걷기 기반 교화프로그램은 신체 활동과 관계 형성을 통합하는 체험 구조를 형성하며, 참여자의 정서적·사회적 변화를 과정적으로 유도하는 교화

〈표 1〉 검찰청 시행 교화프로그램 사례

사례	내용	시행처
스포츠를 활용한 선도 프로그램	실내 교육 위주의 음악, 미술치료 등 선도 프로그램 ‘푸른 교실’에 추가하여 축구, 클라이밍, 배드민턴 등 스포츠를 활용하여 참가 청소년들의 덕성 함양 도모	울산지검
관내 대학과 연계한 선도 프로그램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아트테라피(조각 활동, 상담, 전시회 개최), 축구교실을 통해 교육 및 상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활용	전주지검
범죄예방위원, 대학생 멘토링	멘티 1명 청소년과 멘토 4명 범방위원 2명, 대학생 2명을 한 그룹으로 구성하여 멘티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사랑의 울타리’ 시행	평택지청

출처: 대검찰청(2022)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자 재구성

모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걷기 기반 교화는 단기적 성과만이 아닌 이동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험 구조와 그 의미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주요 흐름은 <표 2>에 정리하였다.

2. 치유적 모빌리티와 이동의 회복 구조

관광은 고정된 장소 방문이 아니라 다양한 이동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모빌리티 기반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Sheller & Urry, 2004). 이와 관련하여 치유적 모빌리티(therapeutic mobility)는 이동을 위치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회복이 형성되는 과정적 경험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다(Gatrell, 2013). 기존 관광 및 여가 연구에서는 이동이 활동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거나, 치유 논

의가 특정 장소의 물리적 환경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Bell et al., 2018; Gesler, 1992). 그러나 최근 연구는 이동 자체와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험이 치유를 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경험적 이동 과정으로 재해석하고 있다(Doughty, 2013; Liggins et al., 2013). 이러한 관점에서 걷기는 신체, 관계, 환경이 결합한 이동 경험으로 이해된다.

먼저, 활동적 신체로서의 걷기는 반복적 움직임을 통해 긴장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는 이동 경험이며, 신체 리듬 형성을 통해 건강 증진과 일상 리듬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박향기, 2016). 사회적 신체로서의 걷기는 타인과의 동행 속에서 관계적 경험이 형성되는 차원으로, 나란히 걷는 과정에서의 대화와 침묵, 공동의 리듬 형성은 위계적이지 않은

<표 2> 걷기를 활용한 교화프로그램 선행 연구

연구자	연구 목적	이론적 틀·개념	자료 수집	데이터 분석	주요 결과
Zucker & Sharma (2012)	교정 시설 내에서 걷기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 탐색	관계 중심 의사소통 미로 걷기 마음 챙김 명상 삶의 질(QOL)	설문지 성찰 일지	기술통계 주제 분석	미로 걷기 시범 프로그램은 실행 가능하고 저비용이며, 참가자 만족도가 높음
Zucker et al. (2013)	교정 시설에서 미로 걷기의 개발 및 발전 방향 제시	미로 걷기 재범률 마음 챙김 자기 성찰·자기 인식	생리학적 데이터 (혈압) 설문지 참가자 소감문	현상학적 내용분석 기술통계 삶의 질 측정 도구 적용	미로 걷기 프로그램이 재소자의 만족도 향상과 혈압 감소 등 긍정적 변화, 자기성찰을 통한 심리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적 개입임이 증명됨
Knospe & Koenig (2021)	장거리 걷기가 교화프로그램 참여자의 회복탄력성 발달에 기여하는지 분석	회복탄력성 청소년 발달과 비행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 능력 낙인 이론	2차 데이터 분석 문헌 검토	질적 연구 혼합 방법론	장거리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긍정적 자아개념, 신체·정서적 회복, 문제해결 능력 등 회복탄력성 핵심 요소를 강화함
Koenig & Knospe (2021)	비행 청소년 대상 장거리 걷기 순례 기반 교화프로그램의 교육적·사회적 작동 원리를 이론적 정리	사회교육학적 순례, 회복탄력성 인정 이론 경험학습·모형교육 낙인이론 생애사적 단절	2차 데이터 관련 문헌, 걷기 교화 프로그램 사례 보고서	이론적·개념적 분석, 문헌 기반 해석적 종합	걷기 자체가 자기 성찰·관계 재구성을 유도하는 과정 중심 교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구금 중심 처벌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적 대안으로 기능함
김원세 (2019)	걷기 교정 프로그램의 의의, 동행자 관점에서 인식과 개선 방안	보호소년 교정 프로그램 걷기 경험 청소년 교정	참가자 소감문 분석	내용분석	동행자 관점에서의 걷기 교정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발견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판단됨

출처: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연구자 재구성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걷기의 맥락은 시간, 공간, 환경 조건을 포함하며 경험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즉, 걷기 경험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의미와 효과가 달라지며 자연환경과 이동 조건은 경험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Gatrell, 2013)(〈표 3〉 참조).

이 연구에서는 활동적 신체, 사회적 신체, 걷기의 맥락을 각각 신체 움직임, 관계적 상호작용, 환경적 조건에 관한 서술을 중심으로 판별하였으며, 이를 고정된 분류 기준이 아닌 자료 해석을 위한 분석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걷기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Bell et al., 2018; Gatrell, 2013). 이 연구에서는 치유적 모빌리티의 세 차원을 고정된 분류 기준으로 적용하기보다 자료 해석을 위한 분석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경험에서는 이 세 차원이 분리되기보다 상호작용 속에서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동일한 신체 리듬은 정서적 완화를 유도하기도 하지만 피로와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동행 역시 관계적 안정과 동시에 긴장이나 거리감을 동반할 수 있다. 또한 환경도 참여자의 상태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걷기 경험은 고정된 범주로 구분되기보다 신체, 관계, 환경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걷기 경험은 자연 체험, 일상탈출, 유대관계,

자아실현 등 다양한 추구 편익 요인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경험으로 나타난다(고미영 외, 2012).

한편, 기존 치유적 모빌리티 논의는 자율성과 선택 가능성을 전제로 전개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통제 환경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Gatrell, 2013). 관광 및 여가 맥락에서의 걷기는 자발적 참여와 이동의 자유를 전제로 하지만, 이 연구와 같은 비자발적 교화 맥락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걷기 경험은 자율적 선택에 기반한 치유 경험과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치유적 의미 또한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수용 정도, 관계적 상호작용, 제도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Bell et al., 2018). 이에 이 연구는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을 고정된 기준으로 적용하기보다, 제도적 맥락 속에서 걷기 경험이 어떠한 조건에서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제한되거나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분석적 관점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접근은 이론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경험 자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념의 의미를 재구성하려는 해석적 분석에 기반한다(Alvesson et al., 2022).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걷기는 비교적 낮은 신체적 진입 장벽을 가지며,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이동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김송이, 2020; Buckley & Westaway, 2020). 또한 자

〈표 3〉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걷기의 특성

구분	핵심 의미	경험적 양상	판정 기준
활동적 신체	신체 활동(activity)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웰빙 향상	반복적이고 리듬감 있는 신체 움직임을 통해 신체적 긴장 완화, 기분·정서 안정, 일상 속 규칙적인 생활 리듬 형성	신체 움직임, 리듬, 피로, 신체 반응에 관한 서술이 나타나는 경우
사회적 신체	이동 중 사회적 연결(sociality)을 강화하여, 고립감·단절감을 줄이고, 관계적 안정감을 촉진	동료·인솔자와 나란히 걷는 과정에서 대화·침묵·공동의 리듬을 공유하며, 위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신뢰와 유대감 형성	동행자와의 상호작용, 관계 형성, 정서적 교류에 관한 서술이 나타나는 경우
걷기의 맥락	걷기 환경과 조건이 정서적 회복과 웰빙을 가능하게 하는 '치유적 모빌리티'의 장을 구성	걷기가 이루어지는 공간, 시간, 환경에 따라 경험의 의미와 효과가 달라지며, 치유적·비치유적 경험을 가름	공간, 시간, 환경 조건 및 상황적 맥락에 관한 서술이 나타나는 경우

출처: Gatrell (2013)을 기반으로 연구자 재구성 및 보완

연환경 속 걷기는 감각 자극을 통해 현재 경험에 대한 주의를 높이고 부정적 정서의 과도한 몰입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Bratman et al., 2015; Kaplan & Kaplan, 2011). 그러나 기존 비행 청소년 대상 교화 연구는 주로 규율과 통제, 또는 프로그램 효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험이 형성되는 방식과 조건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수경, 2010; 김원세, 2019; 오삼광, 2014). 이에 비해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이동하는 몸, 동행자와의 관계, 자연환경 경험이 결합한 조건을 제공하며, 감정 조절과 관계 재구성의 가능성을 형성할 수 있다(박향기, 2023; 주하정, 2025).

다만 이러한 가능성이 항상 일관된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통제 환경에서의 걷기 경험은 정서적 완화와 함께 신체적 피로, 심리적 저항, 관계적 긴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안도감과 개방감을 경험하는 동시에 부담감이나 형식적 참여를 경험할 수 있다(Gatrell, 2013). 따라서 걷기 경험은 긍정적 변화로 직선적으로 수렴되기보다 상반된 경험이 공존하는 과정적 구조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걷기가 치유를 산출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지 않으며, 어떠한 조건에서 정서적 완화와 관계적 변화 가능성이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제도적 맥락 속 걷기 경험이 신체, 관계,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형성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질적 사례연구 기반의 해석적 경험 분석

이 연구는 걷기 교화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에게 어떠한 경험 환경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 접근을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특정 현상을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탐구하고 이해하는 질적 접근으로, 사례를 통해 현상이 어떠한 조건과 과정에서 작동하는지를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Stake, 2008; Yin, 2018). 질적 사례연구는 해석주의 전통에 속하며 연구자의 해석 개입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Travers, 2011). 또한 사례에 관한 상세한 기술과 분석을 중심으로 하며 분석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사건, 프로그램, 활동과 같은 경험 환경으로 설정될 수 있다(Creswell & Poth, 2016).

이러한 연구 설계는 단일 사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적합하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복합적인 현상을 탐구하는 데 활용된다(Yin, 2012). 또한 Dumez (2015)는 사례연구의 출발점으로 사례의 명확한 규정을 강조하며, 연구자는 “내 사례는 무엇의 사례인가?”, “내 사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내 사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분석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사례를 연구 대상뿐만 아니라 이론적 논의를 위한 분석 도구로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Eisenhardt, 1989). 이를 위해 연구 질문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사례연구 설계에서는 핵심적인 분석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Yin, 2018).

Yin (2012; 2018)은 사례연구 설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연구 질문, 분석 단위, 자료와 명제를 연결하는 논리, 연구 결과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걷기 교화프로그램이 어떻게 경험 환경으로 구성되고 인식되는지,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경험이 어떠한 과정과 흐름을 통해 전개되는지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연구 질문은 경험의 결과나 효과를 측정하기보다 경험 환경의 형성과 작동 과정을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사례를 통해 경험 환경의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단일 사례연구로 설계되었으며(Stak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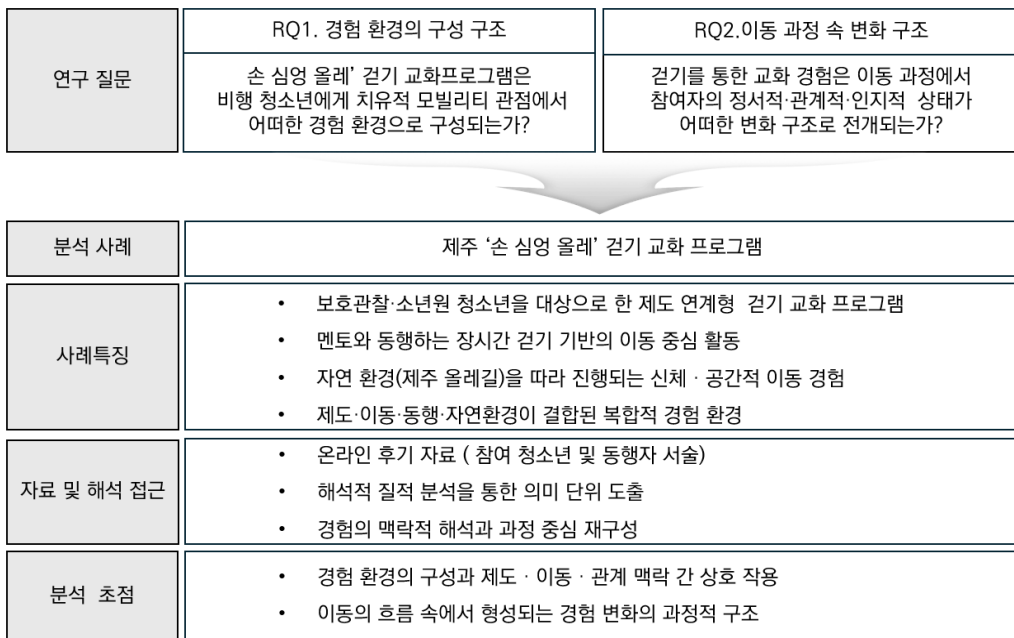
방법 자체를 설명하기보다 걷기 교화프로그램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경험 구조를 해석하기 위한 분석적 틀로 사례연구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단일 사례연구(single-case study)로 설계되었다. 이 사례는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걷기 기반 교화 경험이 어떠한 구조와 과정에서 형성되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적 사례(instrumental case)로 기능한다(Stake, 2008). 이 사례는 제도적 환경, 자연 기반 이동, 동행 관계가 결합한 복합적 경험 구조를 가지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험이 축적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례는 경험 환경의 작동 방식과 과정적 특성을 탐구하기에 적합한 단일 사례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설계와 분석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2. 사례 설정

이 연구는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을 사례로 하였다. 이 사례는 걷기를 활용한 비행 청소년 교화가 어떠한 경험 환경으로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도구적 사례로 기능한다. 사례의 범위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구조뿐 아니라 참여 활동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의 시간적 흐름까지 포함하며(Stake & Visse, 1995; Yin, 2018), 걷기라는 이동이 구성하는 공간적·신체적·사회적·제도적 조건과 그 속에서 형성되는 경험 전개 과정을 핵심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손 심영 올레’는 소년원 재원 또는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상처나 분노를 치유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적 교화프로그램이다(제주지방검찰청, 2023.03.24.). 제주 올레길은 걷기 이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탐방로이며(이미경, 박한우,



<그림 1> 걷기 교화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질적 사례연구 설계

2020), 장시간의 걷기 이동을 통해 자연환경, 신체 활동, 동행 관계가 결합하는 경험 구조를 형성한다(Doughty, 2013; Gatrell, 2013). 이러한 환경적 조건은 참여자가 이동 과정에서 장소, 신체화, 감각 지각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며(Mackley et al., 2015), 치유적 모빌리티가 작동하기 위한 중요한 경험적 기반으로 기능한다(Gatrell, 2013). 또한 이 프로그램은 제주지방검찰청을 포함한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제도화된 구조를 가지며, 참여자의 경험이 누적되는 과정 자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적 가치가 크다. 사례 연구는 반복성과 과정성을 통해 현상의 전개 구조를 이해하는 데 강점을 가지며(Yin, 2018), 이 사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또한 이 사례는 단발성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경험이 축적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는 걷기 교화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변화 가능성을 형성하는지를 탐색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제공한다. 자연환경 속 장시간 이동, 멘토와의 동행 관

계, 제도적 지원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구조는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을 교화 맥락으로 확장 적용할 수 있는 분석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연구는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을 비행 청소년 걷기 경험의 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 사례는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만이 아니라 제도적 교화 맥락에서 이동 기반 경험이 형성되는 방식을 탐색하기 위한 도구적 사례로 설정되었다. ‘손 심영 올레’는 제주 자연환경과 제도적 조건이 결합한 맥락에서 운영되며,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은 해당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다른 지역이나 프로그램에 직접 적용되기보다, 특정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경험 구조에 대한 분석적 제시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사례의 도입 배경과 운영 범위에 관한 내용은 제주지방검찰청 공식 자료(2023.03.24.)를 근거로 <표 4>에 제시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질적 사례연구는 사례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

<표 4>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 개요 및 분석 범위

구분	내용
사례명	‘손 심영 올레’ (손 잡고 올레)
사례 도입 배경	프랑스 비행 청소년 교정 프로그램 ‘쇠이유 (Seuil)’에서 착안, 소년법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치유·선도 중심의 교화 방식으로 도입
사례 도입 시기	2022년 제주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이 도입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및 합동 실시
제도적 연계 기관	제주지방검찰청, (사)제주올레, 제주소년원, 제주보호관찰소, 소년 보호 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청소년 범죄예방 제주 지역협의회
참여 대상	소년원 재원 소년, 보호관찰 소년, 선도 조건부 기소유에 소년 등
프로그램 목적	비행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걷기 활동을 통해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돕는 선도 프로그램
핵심 활동 방식	비행 청소년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손을 잡고 제주 올레길을 걷는 선도 프로그램
공간적 범위	제주 올레길 걷기 구간
경험적 범위	걷기 활동 중 형성되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경험
시간적 범위	프로그램 시작 시점부터 운영된 회차 경험 과정
운영 기간	2022년 6월 ~ 현재까지 운영 중

출처: 제주지방검찰청(2023)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자 재구성

해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는 것을 핵심적인 연구 절차로 제시한다(Creswell & Poth, 2016). 이 연구는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의 제도적 맥락, 운영 구조, 그리고 참여 경험의 전개 과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중 자료원을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공식 문서와 운영 기록은 기관에서 공개한 자료를 전수 수집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제도적 협력 구조, 운영 목적과 방식, 회차별 활동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였다. 또한 참여 청소년이 작성한 온라인 후기와 소감문, 그리고 멘토와 관계자가 작성한 후기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참여자와 동행자의 경험 서술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공식 문서 19건, 회차별 운영 기록 7건, 참여 청소년 후기 23건, 소감문 6건, 동행자 후기 8건으로 구성된다. 이들 자료는 프로그램의 제도적 배경과 운영 방식, 시간적 전개, 그리고 참여 경험의 인식과 의미화 과정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온라인 후기와 소감문은 프로그램 참여 이후 작성된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여자가 걷기 경험을 직접 서술한 경우만 포함하였다. 참여 청소년의 후기와 소감문, 감사 편지는 걷기 이후 작성된 자발적 서술 자료로 수집하였고, 멘토와 관계자의 후기는 동일한 경험 환경을 공유한 동행자 관점의 자료로 포함하였다. 반면 단순 행사 안내, 홍보성 게시물, 중복 게시물, 걷기 경험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분석 대상을 실제 경험의 인식과 의미화 과정을 반영하는 텍스트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다. 수집된 자료 중 공식 문서와 운영 기록은 프로그램의 제도적 배경과 운영 구조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회차별 활동 자료는 시간적 전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참여 청소년의 후기, 소감문 및 감사 편지는 경험의 감정, 인식, 관계 차원을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되었고, 멘토와 관계자의

후기는 동일한 경험 환경을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연구는 사례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 자료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생성한 응답이 아닌 자연발생적 경험 텍스트를 통해 경험 구조를 해석하는 접근이다(Yin, 2018). 이러한 방식은 참여자의 언어와 제도적 맥락이 보존된 상태에서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사례연구의 해석적 접근에 적합하다. 이에 온라인 후기와 소감문은 참여 이후 자발적으로 작성된 자료로,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경험이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텍스트라는 점에서 경험의 인식과 의미화 과정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Creswell & Poth, 2016). 이 연구는 참여자의 내면 상태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보다, 경험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 구조와 과정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작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참여자가 긍정적으로 서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Alvesson et al., 2022).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자료를 참여자의 내면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진술로 해석하기보다, 제도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경험이 어떻게 표현되고 의미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경험 서술로 한정해 해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반복적 읽기와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미 단위 도출, 코드화, 범주화, 그리고 핵심 주제 통합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사례에 관한 기술을 통해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의 제도적 맥락과 운영 구조를 정리하였다. 이후 자료를 순환적으로 검토하며 의미 단위를 도출하고 유사한 코드들을 범주화한 뒤, 시간적 흐름과 경험 맥락 속에서 범주 간 관계를 검토하여 경험 구조를 설명하는 핵심 주제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사례를 총체적 단위로 이해하는 질적 사례연구의 원칙에 맞으며(Dumez, 2015), 주제 중심 해석 전략과도 일치한다(Creswell & Poth, 2016;

Yin, 2018). 또한 분석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의미 단위 도출 및 범주화 과정을 예시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단계적 변화 구조는 개별 참여자의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한 결과라기보다, 회차별 운영 맥락과 참여자 서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의 변화 양상을 비교·통합하여 도출된 분석적 구조로 이해된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는 경험을 단일한 긍정적 흐름으로 전제하지 않고 자료에 나타나는 차이, 긴장, 예외적 사례를 함께 검토하였다. 동일한 경험 맥락에서도 정서적 완화와 피로, 관계적 개방과 거리감, 수용과 저항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경험이 상반된 요소가 공존하는 과정적 경험 구조로 형성될 수 있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Stake, 1995; Yin, 2018).

이에 따라 자료 해석 과정에서는 적극적 수용뿐 아니라 제한적 참여, 저항, 관계적 긴장과 같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경험 구조를 다층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자료의 신뢰성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간 교차 검토를 수행하였다(Yin,

2018). 공식 문서와 운영 기록을 통해 제도적 맥락과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참여 청소년 후기와 동행자 후기를 비교하여 동일한 경험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를 검토하였다(Stake, 2008). 이러한 절차는 자료 간 맥락적 일관성과 차이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해석의 편향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법무부 (2023) 소관의 비행 청소년 교화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료 접근에 제도적 제한이 존재한다. 이에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사례를 시간적·제도적·경험적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맥락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분석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Cousin, 2005). 이를 통해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이 어떠한 경험 환경으로 구성되고 그 환경 속에서 교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며 의미화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표 5〉 참조).

〈표 6〉은 자료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의미 단위, 코드, 범주, 주제 간의 연결 구조를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걷기 참여자가 쓴 원자

〈표 5〉 자료 수집을 위한 근거자료

구분	기관	유형	자료 내용	핵심 내용	연구에서 활용	연도
제도 도입	대검찰청	보도자료	‘손 심영 올레’ 업무협약 체결	제주지검-제주올레-소년보호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프로그램의 제도적 출범 배경 및 거버넌스 구조 확인	2022
초기 운영	대검찰청	보도자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손 심영 올레’ 첫 시행	보호관찰 청소년 8명, 약 7km 걷기	사례의 초기 설계 구조 및 경험 환경의 출발점 분석	2022
운영 확장	대검찰청	보도자료	소년원생과 함께하는 ‘손 심영 올레’ 현장 운영	제주올레 17코스 일부, 약 13km, 소년원 청소년 참여	보호관찰 → 소년원 맥락으로의 확장 과정 분석	2023
정책 공유	대검찰청	보도자료	소년사건 전담검사 워크숍 사례 공유	프랑스 ‘Seuil’ 프로그램 착안 언급	프로그램의 이론적·국제적 참조 맥락 설명	2023
정례 운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기관공지	제주보호관찰소 심성 순화 프로그램 운영	5회차 운영, 제주올레 11코스 8.1km, 보호관찰위원 동행	프로그램의 반복성·정례화 및 경험 환경의 안정성 분석	2023
운영 경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기관공지	‘손 심영 올레’ 운영 경과 정리	코스의 다양화	사례의 시간적 누적성과 과정성 확인	2022 -2024
환경 제도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기관공지	제주 소년원 ‘손 심영 올레길’ 개장	소년원 내 1.8km 숲길 조성, 공식 개장	프로그램이 시설·환경 차원으로 제도화되는 전환점 분석	2024

출처: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자 재구성

〈표 6〉 걷기 교화 경험에 대한 코딩 및 주제 도출 과정

원자료	의미 단위	코드	범주	주제
“처음에는 걷기 싫었는데 계속 걷다 보니까 머리가 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반복적 걷기를 통해 생각이 정리됨	신체 리듬을 통한 인지 정리	활동적 신체 경험	신체 리듬 기반 정서·인지 재조정
“그냥 옆에서 같이 걸으니까 말 안 해도 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동행 속 비언어적 안정감 형성	침묵 공유를 통한 관계 형성	사회적 신체 경험	비위계적 관계 형성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가게 됐어요.”	피로와 지속 의지의 공존	신체적 피로와 인내 경험	활동적 신체 경험	긴장과 회복의 공존
“바다 보면서 걸으니까 기분이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연환경이 정서 안정에 영향	자연환경 기반 정서 완화	걷기의 맥락	환경 기반 정서 조절
“솔직히 하기 싫었는데 해야 하니까 그냥 따라간 느낌이에요.”	비자발적 참여와 수동적 태도	제도적 강제 참여 인식	걷기의 맥락	제도적 조건 속 경험의 제한성
“선생님이라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풀렸어요.”	대화를 통한 정서적 완화	관계 기반 감정 개방	사회적 신체 경험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
“어떤 날은 좋았는데 어떤 날은 그냥 힘들기만 했어요.”	경험의 일관성 없음	긍정·부정 경험의 변동성	통합 범주	상반된 경험의 공존 구조

출처: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자 재구성

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의미 단위를 도출하고, 이를 코드화 및 범주화한 후 범주 간 관계를 통합하여 핵심 주제로 발전시켰다.

4. 해석의 타당성 확보 및 윤리적 고려 사항

해석적 연구에서 타당성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해석의 투명성과 논리적 일관성에서 확보된다(Stake, 2008). 이 연구에서는 사례의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석 과정을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식 문서, 운영 기록, 참여 청소년 후기, 동행자 후기를 함께 검토하여 동일한 경험 환경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를 비교하고, 해석의 근거를 강화하였다(Creswell & Poth, 2016; Stake, 2008). 이 연구는 비행 청소년이라는 취약 집단을 다루는 연구로서 윤리적 고려를 최우선으로 적용하였다. 이 연구는 직접적인 대면 인터뷰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기관에서 공개한 보고서, 보도자료, 운영 자료와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온라인 후기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온라인 후기 자료는 누구나 접

근이 가능한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 텍스트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공개 자료의 활용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비개입적 자료 수집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Hammersley & Atkinson, 2019).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구체적 장소, 특정 사건을 추정할 수 있는 표현 등)를 제거하고 비식별화 처리하였다. 참여자의 인용문은 ‘참여 청소년’으로 표기하여 신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 자료의 경우 개인 식별 불가능한 범위에서 기관명만 제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질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익명성 보장과 참여자 보호 원칙에 근거한다(Guba & Lincoln, 1994). 비행 청소년의 온라인 후기는 참여자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하되,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문제 행동을 규명하기보다 경험 환경의 의미화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동행자(관계자)의 후기 자료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서술이 청소년의 경험을 대신하거나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동행자의 후기는 경험 환경을 보완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규범적 판단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윤리적 기준과 해석의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V. 분석결과

이 연구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참여 청소년과 동행자의 온라인 후기를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은 분석의 출발점으로 참고하되, 실제 경험 구조는 자료 해석 과정에서 도출된 의미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개념은 고정된 분류 기준이 아니라 경험을 해석하기 위한 유연한 분석 틀로 활용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제도적 맥락에서 생성된 자료의 서술 범위 내에서 해석된 것으로, 긍정적 경험이 강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과는 특정 방향의 변화가 일반화된 것으로 보기보다, 경험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가능성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는 두 개의 연구 질문에 따라 제시된다. 먼저,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에게 어떠한 경험 환경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활동적 신체, 사회적 신체, 걷기의 맥락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걷기라는 이동의 흐름 속에서 참여자의 정서적, 인지적, 관계적 변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회복을 완성된 결과로 제시하기보다, 경험 과정에서 형성되는 변화 가능성의 흐름으로서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 해석 과정에서 나타난 의미 단위 간의 차이와 긴장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경험 구조를 해석적으로 재구성하였다.

1.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의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

1) 활동적 신체로 인식된 경험 환경

비행 청소년들은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을 신체 움직임을 통해 정서적 긴장과 부정적 감정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소감문에서는 걷기 과정에서 신체적 피로와 정서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한 참여자는 “걷다 보니 평소에 쌓였던 스트레스나 분노가 사라지며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표현하였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걷기를 하면서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여 좋았다.”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걷기의 반복적인 신체 리듬이 정서적 과잉 각성을 완화하고 사고의 흐름을 조절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Bratman et al., 2015; Gatrell, 2013; Legrand et al., 2022).

동시에 걷기 과정은 ‘힘들지만, 감당이 가능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오랜만에 걸어서 좋았지만 힘들기도 했다. 그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게 신기하다.”라는 서술은 신체적 한계를 경험하는 과정이 자기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성취감은 부담감과 함께 나타났으며, 동일한 경험이 참여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특성을 보였다(Beck & Wong, 2022; Wilson & Lipsey, 2000).

관계자들의 관찰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확인된다. 걷기 과정은 청소년들에게 피로를 수반하면서도 완주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활동적 신체 차원은 정서적 완화와 성취를 동시에 제공하는 한편, 신체적 피로와 심리적 부담을 함께 포함하는 양가적 특성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걷기 경험이 정서적 완화로 이어지기보다 피로와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는 동일한 경험이 참여자의 상태와 수용 정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표 7〉 참조).

〈표 7〉 활동적 신체로 인식된 경험 환경

구분	소감문		해석 및 의미	
	정서적 긴장 완화	“걷다 보니 평소에 쌓였던 스트레스나 분노가 사라지며 마음이 편안해졌다.”	반복적 신체 움직임이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며 정서 조절을 유도함	
청소년	사고의 정리	“걷기를 하면서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여 좋았다.”	신체 리듬을 통한 인지적 과부하 완화	
	감당 가능한 도전	“오랜만에 걸어서 좋았지만 힘들기도 했다. 그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 온 게 신기하다.”	신체적 한계를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자기 효능감 경험	
관계자	성공 경험	“걷는 것조차 싫어하던 아이들이 긴 코스를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좌절이 아닌 성취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적 신체 환경	

2) 사회적 신체로 인식된 경험 환경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들에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과 생각을 비교적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소감문에서는 멘토, 교정 관계자, 동행자와 함께 걷는 과정에 관한 서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한 참여자는 “멘토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셔서 편하게 대화하며 고민 상담을 했다.”라고 서술하였고, 또 다른 참여자는 “어른들이랑 손잡고 걷는 게 거의 처음이라 기억에 남는다.”라고 회상하였다. 이러한 ‘나란히 걷기’와 ‘손을 잡고 걷기’는 통제나 지시 중심의 관계와는 다른 동반자적 상호작용으로 체감되었다(Doughty, 2013; Wong et al., 2024). 또한 “멘토님과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걸었는데, 친어머니와 함께 걷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서술은 걷기 과정에서 형성된 관계가 정서적 안정과 보호받는 감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계자들의 소감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확인된다. 검찰·위원·교사 등 관계자들은 ‘손 심영 올레’를 아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같은 속도로 걷는 드문 시간으로 표현하며, 길 위에서의 동행이 기존 면담과는 다른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한 관계자는 평소 말을 잘 하지 않던 청소년이 “바다를 보며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와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다.”라고 서술하며, 걷기가 내면을 부담 없이 드러내는 계기

로 작용했음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걷기 과정은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을 나누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도 그룹 기반 걷기 프로그램은 사회적 지지와 소속감을 강화하고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Wong et al., 2024). 이러한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이 타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경험하고 신뢰 형성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관계 경험은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관계 형성이 제한되거나 거리감을 유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형식적인 상호작용에 머무르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는 관계적 개방이 일관되게 형성되기보다 참여자의 수용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표 8〉 참조).

3) 걷기의 맥락으로 인식된 경험 환경

비행 청소년들은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이 이루어진 공간적·시간적·제도적 조건을 일상적인 교정 시설 환경과 구별되는 경험으로 인식하였다. 소감문에는 제주 바다, 숲길, 바람, 파도 소리와 같은 자연적 요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러한 환경은 정서적 완화와 주의 전환을 유도하는 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 참여자는 “안

〈표 8〉 사회적 신체로 인식된 경험 환경

구분	소감문	해석 및 의미
청소년	대화의 시작 “멘토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셔서 편하게 대화하며 고민 상담을 했다.”	비(非) 위계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 걷기 상황
	신체적 동행 “어른들이랑 손잡고 걷은 게 거의 처음이라 기억에 남는다.”	신체 접촉을 통한 신뢰 형성
	정서적 안정감 “멘토님과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걸었는데, 친어머니와 함께 걷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다.”	보호받는 감각과 관계적 안정
관계자	관계의 전환 “00 님이 무서운 분일 줄 알았는데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	권위적 타자에 대한 인식 변화
	내면 개방 “바다를 보며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와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다.”	걷기를 매개로 한 정서적 개방

에만 있다가 바깥에 나와 바닷바람을 맞으니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라고 서술하였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풍경이 이렇게 보니 참 예뻐다.”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폐쇄된 실내 환경과 대비되는 개방된 자연환경이 감정 상태와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Hartig et al., 2003; Kaplan & Kaplan, 2011).

시간적 맥락 또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해당 프로그램은 몇 시간에 걸친 장거리 걷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이동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경험을 언급하였다.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와 같은 서술은 걷기 과정이 활동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성찰의 계기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계기로 사회에 나가 더 열심히 살 것 같다.”라는 표현은 장시간 이동이 현재의 감정 상태를 넘어 미래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는 조건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관계자들의 소감에서도 이러한 맥락적 특성이 확인된다. 관계자들은 ‘손 심영 올레’를 교정 시설 내 교육이 아닌 사회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으로 인식하며, 청소년이 수용자가 아닌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이동하는 경험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제주 바다와 마을 길을 함께 걷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퇴원 후 계획, 군 입대, 직업·진로 등을 자발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서술은 해당 프로그램이 사회

복귀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야외 기반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과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Beck & Wong, 2022; Wilson & Lipsey, 2000).

종합하면,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자연환경, 장시간 이동, 사회적 동행이 형성된 조건 속에서 참여자의 인식과 감정 변화를 유도하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일관된 긍정적 변화로 수렴되기보다,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낯선 환경에 대한 부담과 심리적 긴장이 함께 나타났으며, 형식적 참여나 제한적 반응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는 해당 경험이 자율적 선택이 아닌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걷기의 맥락은 정서적 완화와 자기 성찰을 촉진하는 동시에 긴장과 제약을 동반하는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표 9〉 참조).

이처럼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물리적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적 리듬을 통한 정서 조절, 동행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 자연과 제도적 맥락이 통합된 경험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활동적 신체, 사회적 신체, 걷기의 맥락이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통합적 경험 구조로 드러났다. 또한 경험은 일관된 긍정적 흐름으로 이어지기보다 정서적 완화와 부담, 관계적 개방과 거리감이 교차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표 9〉 걷기의 맥락으로 인식된 경험 환경

구분	소감문	해석 및 의미
청소년	공간적 이탈 “안에만 있다가 바깥에 나와 바닷바람을 맞으니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폐쇄적 제도 환경과 대비되는 개방성 경험
	경관 인식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풍경이 이렇게 보니 참 예뻐다.”	자연환경이 인지·정서 전환의 촉매로 작용
	시간적 성찰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장시간 이동이 자기 성찰의 시간 제공
관계자	삶의 재구성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	생애 궤적 재구성의 계기 제공
	사회 복귀 상상 “퇴원 후 계획, 군 입대, 직업·진로를 자발적으로 이야기했다.”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전환적 맥락 형성

동일한 걷기 과정보다 참여자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동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는 걷기 교화 경험의 전개 양상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볼 때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변화는 걷기라는 이동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되며 형성되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참여 청소년의 소감문과 관계자 서술을 종합하면, 걷기 경험은 이동 초기의 긴장과 부담, 이동 과정에서의 정서 완화와 관계적 변화, 이동 이후 자기 인식과 미래 성찰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고정된 단계에 따라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기보다, 정서적 긴장과 완화, 관계적 거리와 개방, 수용과 저항이 반복적으로 교차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즉, 각 경험 요소는 일정한 순서로 고정되어 나타나기보다, 이동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재구성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이러한 경험의 전개 양상은 개별 참여자의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한 결과라기보다, 회차별 운영 맥락과 다양한 참여자 서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의 변화 패턴을 비교·통합하여 도출된 분석적 구조로 이해된다.

1) 이동 초기 : 긴장·부담에서 출발하는 정서·관계 상태

걷기 출발 시기 참여 청소년들은 제주 곳곳을

라는 낯선 공간에서 검찰총장, 검사, 보호관찰소 직원, 멘토를 포함한 자원봉사자와 같은 낯선 어른과의 동행을 긴장과 부담으로 인식하며 긴장과 경계,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한 참여자는 검찰총장, 기자, 검사 등을 ‘제가 살면서 뵈기 힘든 분들’로 묘사하며, “처음에는 너무 긴장되어 자기소개도 제대로 못 했다.”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초기에 관계적 위계와 사회적 지위 구조의 정서적 위축을 가져온 초기 심리적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Van Kleef & Lange, 2020).

관계자들 역시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소극적이고 움츠린 모습을 보였다.”라고 서술하며 초기 상태를 제도적 시선 앞에서 형성된 긴장된 정서·관계로 인식하였다. 이 시점에서 걷기는 여전히 통제된 활동으로 받아들여지며, 정서적으로는 긴장과 불안, 관계적으로는 거리감과 경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동 초기의 정서적 위축과 관계적 거리감은 개인적 성향에 기인하기보다, 제도적 위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맥락적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Scarvaglieri, 2020). 이러한 초기 상태는 참여자의 상황과 관계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강도로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비교적 빠르게 긴장이 완화되는 반면, 다른 참여자에게서는 경계와 거리감이 지속되는 양상도 함께 확인되었다. 이는 이동 초기 경험이 단일한 출발점이 아니라 참여자의 상태와 관계 맥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2) 이동 과정 : 신체 리듬과 동행을 통한 정서 완화와 관계 개방

걷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과 자연환경, 동행 관계가 결합해 정서적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적 개방을 촉진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푸른 제주 바다와 숲속의 풀 향기를 맡으며 걷다 보니 내 마음속 걱정과 괴로움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것을 느껴 매우 행복했다.”라는 참여 청소년의 서술은 걷기 과정 속 이동의 반복 리듬과 주변 환경에서 접한 감각의 결합이 부정 감정을 이완하는 정서 조절 장치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Shafir, 2016; Sudimac et al., 2022).

이러한 정서적 완화는 곧 관계적 변화를 동반하였다. 참여 청소년들은 “위원님들과 손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이 좋았다.”, “마지막 끝날 때까지 손을 잡고 걸으며 개인적인 얘기를 했고, 친어머니와 걷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서술했다. 나란히 손잡고 걷는 신체적 동행이 위계적 관계를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처럼 인식을 재구성하는 경험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참여자들이 걷는 형식이 전통적 상당실 환경에 비해 관계적 위계와 심리적 위협감을 완화하고 안전한 관계 경험을 형성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Newman & Gabriel, 2023).

관계자들 역시 이동의 중반부에서 정서적 이완과 관계적 수평화가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소극적이고 움츠린 모습을 보였지만,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느끼면서 점차 편하게 웃으며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서술처럼, 이동 과정에서는 활동적 신체 경험과 사회적 신체 경험이 겹치며 정서적 긴장 완화와 관계적 거리 감소, 대화와 자기 개방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자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여전히 긴장이나 거리감이 유지되는 양상도 함께 확인되었으

며, 정서적 완화와 관계적 개방이 동시에 나타나기보다 상황에 따라 교차적으로 경험되기도 하였다. 이는 이동 과정이 단일한 전환 단계라기보다, 완화와 긴장이 공존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으로 형성됨을 보여준다.

3) 이동 이후 : 자기 인식 재구성과 미래 지향적 성찰로의 인지 확장

장시간의 걷기 활동을 마친 뒤 청소년들은 걷기 경험을 자신의 삶, 정체성, 미래 계획과 연결해 재해석하는 인지적 전환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좋은 경험이었다.”, “사회에 나가서도 오늘 행사를 기억하며 착실하게 생활하겠다.”, “내 인생의 밝은 시작이 될 것 같다.” 등의 서술은 걷기 경험이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걷기 순례에서 나타나는 관계 맺기, 생활 양식의 재구성 등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변혁적 사건으로 보이는 경험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Schmeiser, 2024; Tisdell,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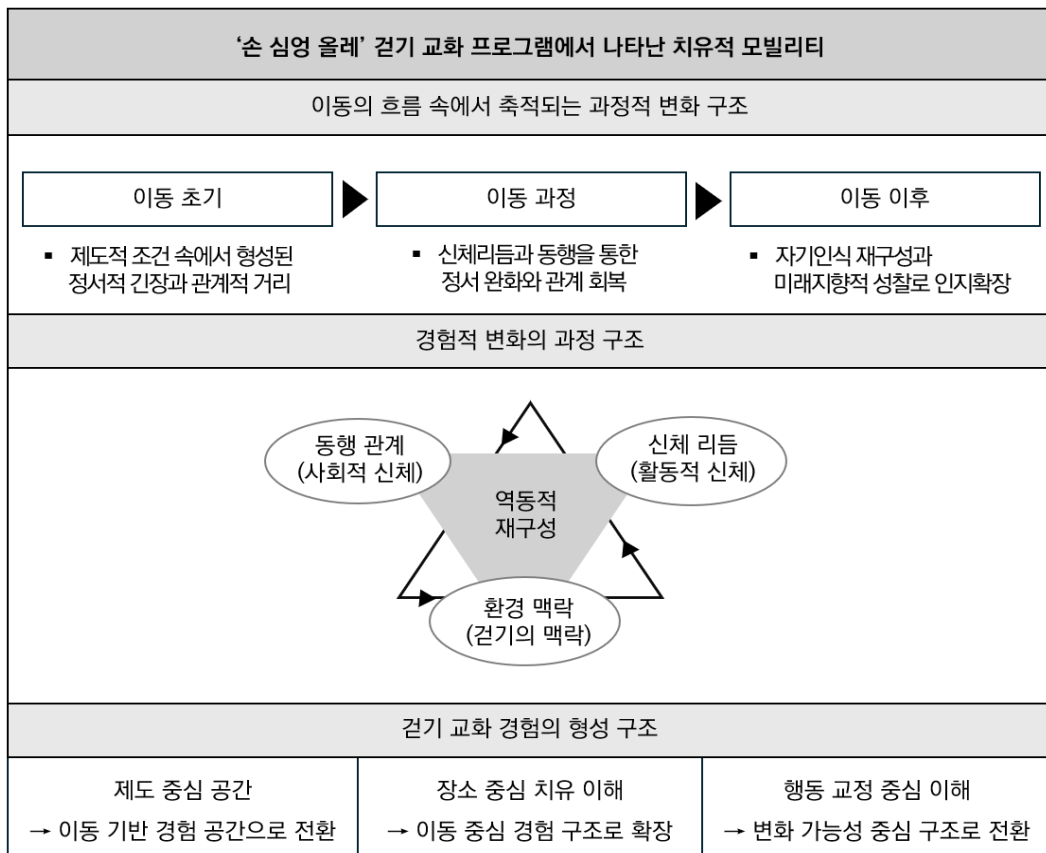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군대 입대, 직업·진로, 자해 중단, 가족과의 관계 재구성 등 현실적인 삶의 선택지에 대한 고민이 드러났다. 한 참여자는 “홀로 양육하시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제과 제빵사라는 꿈을 밝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서술했다. 다른 참여자는 “군대를 거쳐, 프로 운동선수를 목표로 연습할 계획이다.”라고 서술하며, 걷기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구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계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소년범들이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돕고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아울러 상처·분노의 완화와 성취 경험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서적 안정

과 관계적 경험이 결합한 상태에서 인지적·서사적 자기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참여자에 따라 지속되거나 약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일시적인 성찰에 머무르거나 변화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는 이동 이후 경험이 일관된 결과로 고정되기보다, 개인의 상태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유지되거나 약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경험은 정서적 완화, 관계적 개방, 자기 인식 변화가 특정 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보다, 걷기 과정 속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경험적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육이나 훈련의 결과라기보다, 함께 걷고 대화를 나누는 이동

의 흐름 속에서 구성된다. 또한 동일한 걷기 경험도 참여자의 상태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며, 경험의 양상 역시 고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걷기 교화 프로그램은 특정한 변화 결과를 산출한다고 단정하기보다, 다양한 경험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이 형성되는 조건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경험이 실제 행동 변화나 지속적인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하기보다, 변화가 논의될 수 있는 경험적 조건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2>는 이 사례를 연구 질문에 따라 통합적으로 해석한 분석 구조를 제시한다.



〈그림 2〉 걷기 교화프로그램의 치유적 모빌리티 과정과 통합적 분석 구조

V. 논의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제주 ‘손 심영 올레’ 걷기 교화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에게 어떠한 경험 공간으로 인식되며, 이동 과정에서 정서·인지·관계 차원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적 틀과 자연 요소, 인적 상호작용이 결합한 조건 속에서 다양한 경험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경험은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기보다 참여자의 상태와 상황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참여 청소년들은 걷기 과정에서 사고의 정리와 인식의 변화, 정서적 완화 가능성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자연환경 속 몰입과 신체 활동, 관계적 상호작용이 결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Newman & Gabriel, 2023; Oh et al., 2017). 이러한 결과는 치유적 모빌리티 논의와 연결된다. 걷기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정서적 완화와 사색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공한다(Eyles & Williams, 2008; Gesler, 1992). 그러나 일부 참여자에게서는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과 부담이 함께 나타났으며, 이는 치유가 장소의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이동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나타낸다(Gatrell, 2013).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은 자율적 이동을 전제로 형성된 이론이라는 점에서(Bell et al., 2018; Gatrell, 2013), 이 연구와 같은 비자발적 참여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작동한다. 이에 따라 걷기 경험은 참여자의 선택이 아닌 제도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정서적 완화와 관계적 개방과 함께 거리 유지, 소극적 참여, 형식적 반응과 같은 양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걷기 경험이 일관된 치유 과정으로 수렴되기보다 참여자의 수용 정도와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과정적 경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치유적 모빌리티는 참여자의 저항,

형식적 순응, 관계적 긴장과 같은 요소가 공존하는 조건 속에서 제한적으로 구성되는 관계적·과정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치유적 모빌리티를 보편적 개념으로 확장하기보다, 제도적 환경 속에서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경험적 가능성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걷기 경험은 정서, 인지, 관계 차원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반복적 신체 리듬은 정서적 안정과 인지적 여유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으며, 동행 관계는 비형식적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였다(Zurawik, 2020). 자연환경 역시 정서적 완화와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일부에서는 일시적 인식 변화에 머무르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이는 교화를 특정 결과로 이해하기보다, 경험의 축적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온라인 후기와 공식 문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참여자의 심층적 내면 경험을 직접적으로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규명하기보다, 제도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걷기 경험이 어떠한 구조와 과정으로 인식되고 의미화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교화 연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경험 형성의 조건과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제도적 환경에서의 참여는 자율적 선택에 기반한 경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며, 치유적 모빌리티 역시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제한적이고 관계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험 기반 교화프로그램이 특정 결과를 산출하는 개입이라기보다, 참여 조건과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 가능성이 형성되는 과정적 구조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해는 향후 프로그램 설계에서 개입의 효과 자체보다 경험이 형성

되는 조건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이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적 모빌리티 개념을 제도적·비자발적 맥락에서 재검토하고 그 작동 조건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따른 이동이나 여가 활동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Gatrell, 2013; Williams, 2010). 그러나 이 연구는 보호관찰이라는 제도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걷기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치유적 모빌리티가 자율적 선택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개념이 아니라, 제도적 맥락에서도 제한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경험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신체 리듬, 자연환경, 동행 관계가 결합한 조건 속에서 정서적 완화와 인식 변화는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참여 조건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적 가능성’으로 나타난다.

둘째, 걷기 교화를 경험 환경으로 재개념화하여 경험 연구의 분석 단위를 확장하였다. 기존 교화 연구는 프로그램 구성 요소의 개별 효과나 단기 결과에 주로 초점을 두었으나, 이 연구는 자연환경, 신체 활동, 관계적 상호작용, 제도적 조건이 결합한 총체적 경험 환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경험이 형성되는 조건적 구조에 대한 이해(Pine & Gilmore, 1998)와 연결되며, 걷기 교화 경험이 참여자의 정서적 완화와 관계적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흐름’을 형성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관광학적 경험 개념이 자발적 여가 맥락을 넘어 제도적·비자발적 이동 상황에서도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관광 경험 연구는 자발적 참여와 몰입을 전제로 발전해 왔으나(Csikszentmihalyi, 1990), 이 연구는 제도에 의해 구조화된 이동 상황에서도 장소와의 상호작용과 타자와의 관계 형성이 자기 인식과 성찰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관광 경험 개념이 특정 동기나 상황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적 개입과 회복이 요구되는 맥락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해석 틀로 기능할 수 있을

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걷기 기반 교화 경험을 치유적 모빌리티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동 경험이 특정한 치유 결과로 수렴되기보다 참여 조건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과정적 경험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개념이 제도적 맥락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제한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해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비행 청소년 대상 교화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신체 활동 중심의 개입뿐만 아니라 정서 조절과 관계 형성을 함께 고려한 경험 환경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반복적인 신체 리듬은 정서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며, 동행 관계는 비위계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설계는 이동 거리나 활동량 중심이 아니라, 참여자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 형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멘토 동행자의 역할은 단순 관리자가 아니라 관계 형성 촉진자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나란히 걷기, 비형식적 대화, 신체적 동행은 기존의 지시 중심 상호작용과는 다른 방식의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교화프로그램 운영 시 멘토와 관계자에게 관계 형성 방식과 동행 기반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과 운영 지침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활동 운영만이 아닌 동행 관계 구성, 이동 경로 설계, 참여자의 수용 정도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설계 기준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걷기 경험은 신체 활동 자체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상호작용, 자연환경 조건, 참여자의 수용 정도가 결합한 조건 속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프로그램 설계에서는 신체 활동의 강도뿐 아니라 관계 형성과 환경 조건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

넷째, 걷기 교화프로그램은 단기적 성과를 산출하는 개입이 아니라 경험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평가 기준 역시 단기적 행동 변화가 아니라 경험 과정에서 형성되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치유관광 개념과 정합성을 가지며, 자연환경 기반 걷기 활동이 치유관광 자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설계의 특성상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단일 사례 분석에 따른 적용 범위의 제한이다. ‘손 심영 올레’ 프로그램은 제주 지역의 자연환경과 제도적 조건에 기반하고 있어, 결과는 통계적 일반화가 아닌 분석적 일반화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적 맥락에서 작성된 청소년 소감문은 외부의 평가를 의식한 서술일 가능성이 있으며, 자율적 감정 표현이 아닌 긍정적 평가 중심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자료 구성에 따른 방법론적 한계이다. 이 연구는 공식 문서와 온라인 후기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자료는 제도적 맥락에서 작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경험이 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개된 텍스트는 경험의 일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경험 해석의 범위 및 시간적 전개에 관한 한계이다. 이 연구는 참여자의 경험 서술을 바탕으로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장기적 회복이나 행동 변화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경험의 전개 양상은 개별 참여자의 시간적 흐름을 직접 추적한 결과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비교·통합하여 도출된 분석적 구조라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고, 심층 인터뷰, 참여 관찰,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경험 과정의 미시적 변화를 정

교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동 기반 경험 구조의 공통성과 맥락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

None.

Author's contributions

Chu, Ha-Cheong: Conceptualization, Methodology, Data Analysis, Writing-Original Draft, and Revision.

Syn, Ye-Won: Methodology and Writing.

Koh, Da-Eun: Data Analysis and Writing(Reviewing and Editing).

Jeong, Chul: Supervision and Validation, Writing (Reviewing and Editing).

References

- 고미영, 오창현, 정철 (2012). 추구편익을 활용한 지역 축제 방문객 시장세분화-제주올레걷기축제를 사례로. <관광학연구>, 36(5), 93-113.
- 김도윤 (2020). 소년교도소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교정과 양육의 결합 시도. <법학연구>, 20(1), 269-289.
- 김상균 (2005).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도덕발달 차이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 97-122.
- 김송이 (2020). <도보관광자의 회복환경지각이 회복경험, 도보관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김수경 (2010). 비행 청소년 교정교육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례연구: P 소년원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27-60. <https://doi.org/10.16981/kliiss.41.2.201006.27>
- 김원세 (2019). 청소년 교정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4), 326-335. <https://doi.org/10.5392/JKCA.2019.19.04.326>
- 김지연, 이유진, 정소연, 박선영, 최수정 (2018). <위기 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 실태 및 실효성 제고

-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73.
- 김진옥, 김남조, 한승훈 (2016). 치유관광에서 자연을 통한 감정조절과 지각된 회복환경이 의사결정과정 에 미치는 영향: 숲 치유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숲 치유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0(8), 47-60. <https://doi.org/10.21298/IJTHR.2016.08.30.8.47>
- 김태훈, 김기진 (2021). 맨발 걷기운동이 중학생의 인지 기능 및 두뇌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30(3), 1099-1110. <https://doi.org/10.22143/HSS21.12.3.11>
- 김형렬, 이정탁 (2007). 비행 청소년의 이동식 야영활동을 통한 행동변화.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1(3), 123-135.
- 대검찰청 (2022. 7. 1.). <2022년 전국 소년 전담검사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 <https://www.spo.go.kr/>
- 문지영, 이훈 (2024). 걷기여행자의 편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여도와 만족도의 매개효과. <관광학연구>, 48(1), 121-145. <https://doi.org/10.17086/JTS.2024.48.1.121.145>
- 박종구 (2012). 여가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과 사회재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4(2), 3-24.
- 박하나, 김성은, 김현수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사유와 경험 이해: 학업중단 예방 정책에의 시사점. <한국청소년연구>, 32(3), 261-288. <https://doi.org/10.14816/sky.2021.32.3.261>
- 박향기 (2016). 치유적 모빌리티로서 서울 한양도성길 걷기. <대한지리학회지>, 51(1), 109-125. <https://doi.org/10.22776/kgs.2016.51.1.109>
- ____ (2023). <상상 모빌리티를 통한 치유감 형성>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____ (2025). 문화지리 핵심개념의 건강지리로의 전이와 확장 - 경관,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 <대한지리학회지>, 60(5), 609-622. <https://doi.org/10.22776/kgs.2025.60.5.609>
- 법무부 (2023. 9. 25.). <제주보호관찰소, 심성순화프로그래 (손 심영 올레) 운영>. 범죄예방정책국. <https://www.cppb.go.kr>
- 손경원, 이인재 (2009). 청소년 일탈행동 예방을 위한 사회정서학습의 특징과 교육적 함의. <윤리교육연구>, (19), 169-199.
- 오삼광 (2014).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8(2), 1-28. <https://doi.org/10.35147/KNPSI.2014.28.2.1>
- 이미경, 박한우 (2020). 빅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걷기여행길 연결망 분석과 경쟁력 평가. <관광학연구>, 44(1), 41-57. <https://doi.org/10.17086/JTS.2020.44.1.41.57>
- 이인곤 (2020). 한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법교육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 313-341.
- 이재규, 정현아, 이순민 (2024).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체계적 문헌고찰. <청소년상담학회지>, 5(3), 113-142. <https://doi.org/10.51613/JKYCA.2024.5.3.113>
- 이태숙, 전채남, 이태환 (2020). 국내 주요 걷기여행길의 이용행태에 대한 시멘틱 네트워크 (Semantic Network) 분석. <관광학연구>, 44(4), 147-167. <https://doi.org/10.17086/JTS.2020.44.4.147.167>
- 장안식, 안윤숙, 정혜원 (2016). 시설보호 비행청소년의 재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연구. <교정연구>, 26(3), 211-233. <https://doi.org/10.14819/krscs.2016.26.3.9.211>
- 장환순 (2014. 6. 7.). 쇠이유(Seuil). <단비뉴스>. <http://www.danbinews.com>
- 정철, 정란수, 이훈 (2011). 도보관광 수요와 파급효과 분석-제주올레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5(8), 389-408.
- 정현옥 (2016).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정책의 효과분석-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제주지방검찰청 (2023. 3. 24.). <검찰총장, 소년 선도 프로그램 '손심영 올레' 동행> [보도자료]. <https://www.spo.go.kr/>
- 주하정 (2025). <장거리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행 청소년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 문, 한양대학교].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지표누리 (2025. 9. 16.). <범죄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소년사범>. 대검찰청. <https://www.index.go.kr>
- 최인섭, 이순래 (2009). 청소년의 재범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302.
- Alvesson, M., Sandberg, J., & Einola, K. (2022). Reflexive design in qualitative research. In U. Flick (Ed.), *Reflexive design in qualitative research* (Vol. 2, pp. 23-40). SAGE Publications Ltd. <https://doi.org/10.4135/9781529770278.n3>
- Beck, N., & Wong, J. S. (2022).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wilderness therapy on delinquent behaviors among youth.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9(5), 700-729. <https://doi.org/10.1177/00938548221078002>
- Bell, S. L., Foley, R., Houghton, F., Maddrell, A., & Williams, A. M. (2018). From therapeutic landscapes to healthy spaces, places and practices: A scoping review. *Social science & medicine*, 196, 123-130.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7.11.035>
- Bratman, G. N., Daily, G. C., Levy, B. J., & Gross, J. J. (2015). The benefits of nature experience: Improved affect and cognitio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38, 41-50. <https://doi.org/10.1016/j.landurbplan.2015.02.005>
- Buckley, R., & Westaway, D. (2020). Mental health rescue effects of women's outdoor tourism: A role in COVID-19 recovery. *Annals of tourism research*, 85, 103041. <https://doi.org/10.1016/j.annals.2020.103041>
- Chu, H. C., Lee, J., & Roh, H. (2025). Beyond religious tourism: revolutionizing Templestay as a mental health intervention through wellness tourism.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42(8), 1118-1134. <https://doi.org/10.1080/10548408.2025.2556128>
- Cousin, G. (2005). Case study research.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29(3), 421-427. <https://doi.org/10.1080/03098260500290967>
- Creswell, J. W., & Poth, C. N.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Doughty, K. (2013). Walking together: The embodied and mobile production of a therapeutic landscape. *Health & place*, 24, 140-146. <https://doi.org/10.1016/j.healthplace.2013.08.009>
- Dumez, H. (2015). What is a case, and what is a case study?. *Bulletin of Sociological Methodology/Bulletin de méthodologie sociologique*, 127(1), 43-57. <https://doi.org/10.1177/0759106315582200>
- Eisenhardt, K. M. (1989). Building theories from case study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4), 532-550. <https://doi.org/10.5465/amr.1989.4308385>
- Eyles, J., & Williams, A. (Eds.). (2008). *Sense of place, health and quality of life*. Ashgate Publishing, Ltd.
- Gatrell, A. C. (2013). Therapeutic mobilities: walking and 'steps' to wellbeing and health. *Health & place*, 22, 98-106. <https://doi.org/10.1016/j.healthplace.2013.04.002>
- Gesler, W. M. (1992). Therapeutic landscapes: medical issues in light of the new cultural geography. *Social science & medicine*, 34(7), 735-746. [https://doi.org/10.1016/0277-9536\(92\)90360-3](https://doi.org/10.1016/0277-9536(92)90360-3)
-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105-117). Sage Publications, Inc.
- Hammersley, M., & Atkinson, P. (2019). *Ethnography: Principles in practice*. Routledge.

- Hartig, T., Evans, G. W., Jamner, L. D., Davis, D. S., & Gärling, T. (2003). Tracking restoration in natural and urban field setting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2), 109-123. [https://doi.org/10.1016/S0272-4944\(02\)00109-3](https://doi.org/10.1016/S0272-4944(02)00109-3)
- Ivaldi, A. (2024). Understanding and restoring the self in nature for well-being: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walking coaching experiences. *The Humanistic Psychologist*, 52(2), 206-222. <https://doi.org/10.1037/hum0000314>
- Kaplan, R., & Kaplan, S. (2011). Well-being, reasonablenes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Applied Psychology: Health and Well-Being*, 3(3), 304-321. <https://doi.org/10.1111/j.1758-0854.2011.01055.x>
- Kitchin, R., & Tate, N. (2013). *Conducting research in human geography: theory, methodology and practice*. Routledge.
- Knospe, Y., & Koenig, K. (2021). Young Offenders on the Camino de Santiago—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Learning Walks. *Religions*, 13(1), 5. <https://doi.org/10.3390/rel13010005>
- Koenig, K., & Knospe, Y. (2021). Learning walks as a chance of reintegration for young offenders in three countries of Central Europe: Belgium, France, and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80, 102300. <https://doi.org/10.1016/j.ijedudev.2020.102300>
- Le Breton, D., Marcelli, D., & Ollivier, B. (2012). *Marcher pour s' en sortir*. Eres.
- Legrand, F. D., Jeandet, P., Beaumont, F., & Polidori, G. (2022). Effects of outdoor walking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nature contact makes a big difference.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16, 901491. <https://doi.org/10.3389/fnbeh.2022.901491>
- Lekareva, E. E., Zaretskiy, V. V., Artamonova, E. G., Salakhova, V. B., Efimova, O. I., & Kalinina, N. V. (2018). Comprehensive rehabilitation of minors with deviant and delinquent behavior: The experience of the Russian system of education. *Eurasian Journal of Analytical Chemistry*, 13(1), 84-84. <https://doi.org/10.29333/ejac/102249>
- Liggins, J., Kearns, R. A., & Adams, P. J. (2013). Using autoethnography to reclaim the 'place of healing' in mental health care. *Social Science & Medicine*, 91, 105-109.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2.06.013>
- Mackley, K. L., Pink, S., & Moroşanu, R. (2015). Knowing the world through your body: Children's sensory experiences and making of place. In A. Hackett, L. Procter & J. Seymour (Eds.), *Children's spatialities: Embodiment, emotion and agency* (pp. 21-38). Palgrave Macmillan UK. https://doi.org/10.1057/9781137464989_2
- Meredith, G. R., Rakow, D. A., Eldermire, E. R., Madsen, C. G., Shelley, S. P., & Sachs, N. A. (2020). Minimum time dose in nature to positively impact the mental health of college-aged students. *Frontiers in Psychology*, 10, 2942. <https://doi.org/10.3389/fpsyg.2019.02942>
- Newman, E., & Gabriel, L. (2023). Investigating clients' experiences of walk and talk counselling.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23(1), 125-133. <https://doi.org/10.1002/ca.pr.12567>
- Nisar, M., Ullah, S., Ali, M., & Alam, S. (2015). Juvenile delinquency: The Influence of family, peer and economic factors on juvenile delinquents. *Applied Science Reports*, 9(1), 37-48. <https://doi.org/10.15192/PSCP.ASR.2015.9.1.3748>
- Oh, B., Lee, K. J., Zaslawski, C., Yeung, A.,

- Rosenthal, D., Larkey, L., & Back, M. (2017). Health and well-being benefits of spending time in forests: Systematic review. *Environmental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22(1), 71. <https://doi.org/10.1186/s12199-017-0677-9>
- Pine, B. J., & Gilmore, J. H. (1998). The experience economy. *Harvard business review*, 76(6), 18-23.
- Qian, L. Q. (2021). Mobility in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On Significances of Movement and Quasi-movement in Human Life. *KRITIKE: An Online Journal of Philosophy*, 14(3), 48-70.
- Scarvaglieri, C. (2020). First encounters in psychotherapy: relationship-building and the pursuit of institutional goals. *Frontiers in psychology*, 11, 585038. <https://doi.org/10.3389/fpsyg.2020.585038>
- Schmeiser, M. (2024). *Transformative experiences on the Camino de Santiago: A mixed methods study of pilgrims' motivations, experiences, and transformative outcome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Humanistic Studies]. University of Humanistic Studies Research Repository.
- Shafir, T. (2016). Using movement to regulate emotion: Neurophysiological findings and their application in psychotherapy. *Frontiers in psychology*, 7, 1451. <https://doi.org/10.3389/fpsyg.2016.01451>
- Sheller, M., & Urry, J. (2004). *Tourism mobilities: Places to Play, Places in Play*. Routledge.
- Stake, R., & Visse, M. (1995). *Case study research*. Springer.
- _____. (2008). Qualitative case studie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Strategies of Qualitative Inquiry* (3rd ed., pp. 119-149). Sage Publishing Inc.
- Shudimac, S., Sale, V., & Kühn, S. (2022). How nature nurtures: Amygdala activity decreases as the result of a one-hour walk in nature. *Molecular psychiatry*, 27(11), 4446-4452. <https://doi.org/10.1038/s41380-022-01720-6>
- Thomas, K. J. (2018). Revisiting delinquent attitudes: Measurement, dimensionality and behavioral effect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4(1), 313-341. <https://doi.org/10.1007/s10940-016-9336-3>
- Tisdell, E. J. (2013). We make the way by walking: Spiritual pilgrimage and transformative learning while walking the Camino de Santiago. *Adult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1(2013).
- Travers, M. (2011).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case studies*. SAGE Publications Ltd. <https://doi.org/10.4135/9781849209724>
- Van Kleef, G. A., & Lange, J. (2020). How hierarchy shapes our emotional lives: Effects of power and status on emotional experience, expression, and responsivenes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33, 148-153. <https://doi.org/10.1016/j.copsyc.2019.07.009>
- Williams, A. (2010). Spiritual therapeutic landscapes and healing: A case study of St. Anne de Beaupre, Quebec, Canada. *Social Science & Medicine*, 70(10), 1633-1640.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0.01.012>
- Wilson, S. J., & Lipsey, M. W. (2000). Wilderness challenge programs for delinquent youth: A meta-analysis of outcome evalu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1), 1-12. [https://doi.org/10.1016/S0149-7189\(99\)00040-3](https://doi.org/10.1016/S0149-7189(99)00040-3)
- Wong, M. Y. C., Leung, K. M., Thøgersen-Ntoumani, C., Ou, K., & Chung, P. K. (2024). Effectiveness of a supervised group-based walking program on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outcomes among older adults: a randomised controlled trial protocol. *BMJ open*, 14(10), e088315. <https://doi.org/10.1136/bmjopen-2024-088315>
- Yin, R. K. (2012). Case study methods. In H.

- Cooper, P. M. Camic, D. L. Long, A. T. Panter, D. Rindskopf & K. J. Sher (Eds.), *APA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Vol. 2. Research designs: Quantitative, qualitative, neuropsychological, and biological* (pp. 141-15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3620-009>
- _____ (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Sage.
- Zucker, D. M., & Sharma, A. (2012). Labyrinth walking in corrections. *Journal of Addictions Nursing*, 23(1), 47-54. <https://doi.org/10.3109/10884602.2011.645253>
- _____, Villemare, L., Rigali, C., & Callahan, K. (2013). The evolution of a labyrinth walking program in corrections. *Journal of Forensic Nursing*, 9(2), 101-104. <https://doi.org/10.1097/JFN.0b013e3182810457>
- Zurawik, M. (2020). Moving through spaces—leisure walking and its psychosocial benefits for well-being: a narrative review. *Human Movement*, 21(2), 1-8. <https://doi.org/10.5114/hm.2020.89908>